



2023년, 함께 잘 사는 통일세상을 만들어 가자

김윤호 주필·행정학박사·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2022년 임인년(壬寅年), 검은 호랑이의 해가 저 서산 너머로 저물어갔다. 2023년 계묘년(癸卯年), 지혜로운 검은 토끼의 해, 새해 새날이 동해 바다 건너 어둠을 헤치고 동터왔다. 보이지 않는 시간의 무한한 흐름에 무슨 매듭이나 특별한 색깔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들은 시간을 구분하고 쪼개고 의미를 부여해서 시간을 맞이하고 보내고 있다. 과학은 모든 현상과 본질을 분석하고 원인과 결과를 연구하고 논리적인 설명을 시도한다. 흘러가는 세월은 누구도 붙잡을 수가 없고, 다가오는 세월을 막을 사람도 동서고금을 통틀어도 절대 없다. 모든 생명과 존재는 시간 속에서 태어나고 늙어서 병들고 죽어가는 생노병사(生老病死)와 이루어지고 머무르고 무너져서 없어지는 성주괴공(成住壞空)의 진리를 따르고 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변화하고(제행무상, 諸行無常), 영원한 것은 없다(제법무아, 諸法無我), 이것이 참된 이치, 불멸의 진리(眞理)다.

삶에서 1년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나이도, 학교 학년도 1년을 기본 단위로 삼고 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채워가느냐는 전적으로 개인의 문제다. 그러나 거대한 법과 제도, 시스템이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친 복잡다난한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삶의 현상이 많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국가가 공평 계엄을 위해서 민간 부문에 개입해야 할 일들이 많아지고 있다. 사회적 약자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계층간·지역 간·세대 간 양극화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세계 10위 경제강국으로 놀랍게 발전한 우리나라는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세계 5위 이내로 당당히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양극화 해소와 평화통일 달성은 절대로 단순하지도 않고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민생정책을 꾸준히 펼쳐야 선진민주복지국가가 될 것이다. 통일정책은 지금처럼 정권이 바뀌면, 동쪽으로 갔다가 서쪽으로 갔다가 하다가 빠꾸 오라이(後進)를 하거나, 아예 거꾸로 가는 위험 천만한 역주행(逆走行)을 해서는 안된다. 진보적인 사회민주당 브란트 수상이 1970년 교류협력정책인 동방정책을 시작하고,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성있게 추진하여 보수적인 기독교민주연합의 풀 수상이 1990년 독일 통일을 완성했다.

통일정책을 공부한 통일전문가, 학자적인 양심으로 말한다. 현재 윤석열 정권은 통일을 역주행하고 있다. 밀리 독일 통일을 참고하지 않더라도 가까이 보수정권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 10년 동안 통일정책을 해보았지 않는가. 박근혜 대통령 말기엔 전쟁 일본 직전의 전쟁 먹구름이 뒤덮인 한 반도가 되었다. 한·미·일과 북·중·러의 집단 대결의 신냉전(新冷戰), 남북관계의 적대(敵對)와 군사 위협,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에서 다수당이 더 불어민주당과의 불협지 등 강대강(強對強) 대결의 연속이다.

지금은 민주주의 하자고 해도 좌파 빨갱이, 통일을 하자고 말해도 좌파 빨갱이라고 색깔론으로 뒤집어씌우는 반공과 승공과 멸공의 독재와 권위주의시대가 아니다.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과는 1990년 한·러수교(노태우 대통령 시기)했다. 6·25전쟁 때 중공 오랑캐라고 싸웠던 공산당 집권의 중국과는 1992년에 국교를 수립(노태우 대통령 시기)해서 포괄적 협력자 관계를 맺고 있다. 미국과의 무역량, 일본과의 무역량을 합한 것보다 중국과의 무역량이 더 많다.

북한을 수천년 한반도에서 함께 살아왔고 앞으로도 함께 살아가야 할 형제자매요, 동포요, 동반자로 보지 않고, 지금처럼 대결과 적대감의 적(敵)으로 악마화(惡魔化)해서는 통일의 길로 접근할 수도 없다. 우발적인 충돌로 인한 전쟁이 안 일어나면 천만다행이고, 통일은 앞으로 또 다시 70년, 100년이 가도 되지 않을 것이다. 나의 주장과 이 글이 힘없는 미미한 외침이지만 먼 후일을 위한 기록으로 남겨두고자 한다.

지난 한 해는 듣도 보도 못한 코로나라는 역병(疫病)의 대환란(患亂)으로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모두들 잘 이겨냈다. 지금도 마스크를 써야 하는 녹록치 않은 상황이지만, 수중 용궁(龍宮)에서 살아나온 토끼의 민첩함과 지혜를 생각하면서 어렵고 힘든 현실을 잘 이겨내자. 3년이 지나고 앞으로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지독한 코로나라는 괴물이 물러가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손 화살(손살)처럼, 흐르는 물(流水)처럼, 돌아가는 물레살처럼 세월은 빠르게 흘러가고 있다. 해 맑은 새해에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족과 함께 더욱 강건하시고 더욱 행복하시고, 뜻 하시는 일이 모두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두 손 모아 뜨겁게 축원한다.

불나면 대피 먼저!

박정화 담양소방서 예방안전과 예방홍보팀장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로 다중이용시설에는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푹 떨어져 화기취급이 급증하는 시기로 소방관들이라면 좀 더 신경을 곤두세우게 된다.

긴장감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고 필연적이라 생각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계절적으로 화기를 많이 사용하고 이로 인해 크고 작은 화재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최근 건축물을 보면 불에 잘 타는 가연성 건축자재의 사용 증가로 화재 시 치명적인 유독가스가 다량 발생하고 급격한 연소 확대로 대피 가능한 시간이 과거에 비해 짧아지고 있다.

그 위험성은 2020년 4월에 발생한 경기도 이천물류창고 화재를 들 수 있다. 당시 지하 2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38명이 숨지고 10여명이 다쳤다. 화재 당시 지하 2층에서 유래탄 작업 중 유증기에 미상의 접화원이 접촉하면서 화재가 발생했고 인근 조립식 건축자재로 옮겨 불이 번지면서 대형화재로 확대되었다. 화재 당시 다수의 근로자가 작업 중이었다. 따라서 작업장에서 근로자를 투입하기 전에 신고보다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게 됐다.

그렇다면 화재 발생 시 어떻게 해야 잘 대피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화재경보가나 알람이 울리면 '불이야!'하고 큰 소리로 알리고 비상벨을 눌러 사람들이 불이 난 사실을 알게 한다.

적절한 대피 방법을 결정한다. 문을 열 때 손잡이가 따뜻하거나 뜨거우면 문 반대편에 불이 났다고 생각하고 열지 않으며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계단을 통해 안전한 장소로 신속하게 대피한다. 만약 고립됐다면 창문이나 대피공간으로 이동해 구조요청을 하거나, 완강기와 같은 대피수단을 이용해 탈출한다.

올바른 자세로 신속하게 대피한다. 손수건, 마스크, 옷 등을 이용해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지면에서 60cm 이하로 낮춘 상태에서 한 손으로 벽을 짚으며 유도 등, 유도표지, 앞서 가는 사람을 따라 대피한다.

연기 확산을 막기 위해 문을 닫고 대피한다. 문을 닫아 연기의 이동을 막고 산소를 차단해 불이 커지는 것을 막는다.

초기에 소화기를 이용해 화재를 진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같은 행동요령을 사전에 숙지하며 '불나면 대피 먼저'를 잊지 말고 가정과 동료에게 대피요령을 알려줘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기를 바란다.

기고

서민 울리는 전세사기,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윤승민 여수경찰서 경무과순경



해마다 서민의 경제생활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전세 사기의 범죄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최근 금리 인상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높아지고 부동산 가격 하락 가능성에 따른 무자본·갭투자, '강통전세', 고의적 보증금 미반환,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실소유자 행세 등 전세 사기 유형의 다양화에 대한 사회적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사실상 전 재산을 잃었다는 정신적 상실감과 육체적 고통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 사기를 피하는 방법은 무엇이며 전세 사기를 당했을 때 대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첫째, 전세보증금 보험에 가입하여 사기를 당했을 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집주인 허가 없이도 가능하므로 가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둘째, 등본을 직접 확인하고 계약서상에서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기 전 매매, 근저당권 설정 등 금지, 위반 시 계약 해지 가능' 특약 문구를 확인하여 가계약을 진행하고,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찰청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기 피해자를 위해 임시거처를 지원하고, 법률 전문가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적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기고

외부 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이주여성긴급전화	1577-1366	▲기상예보	131
▲응급질병상담	1399	▲법률구조상담	132
▲미아·가출인 신고	182	▲인광야교을 상담센터	222-5666
▲여성 긴급전화	1366	▲광주 남성의전화	673-9001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388	▲광주 여성의전화	363-7739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수도 고장신고	12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전기 고장신고	123
▲응급의료센터	1399	▲가스사고 신고	383-0019

호남신문 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 서구 윤천로 213 스카이랜드 309호

발행인·편집인 최정현 편집국장직무대리 서선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충효로 63 가동 2호 (061) 905-2011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적동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원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mpn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